

OCI, 폴리실리콘 2만7000톤 증설

추가 증설에 2년간 1조8800억원 투입 ... 생산능력 세계 1위 부상

OCI가 폴리실리콘(Polysilicone) 증설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OCI(대표 백우석)는 2년간 1조8800억원을 투자해 2만7000톤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12월8일 발표했다.

2012년 10월까지 1조6000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공장에 No.4 2만톤 공장을 세운 후 2011년 11월까지 2800억원을 투입해 No.3 공장을 디보틀네킹함으로써 생산능력을 7000톤 늘리기로 했다.

증설이 끝나면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은 6만2000톤으로 증가해 경쟁기업인 미국 Hemlock이나 독일 Wacker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OCI 관계자는 “태양광 전지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해외 주문이 현재 생산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가 될 No. 공장이 가동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No.3 공장의 증설공사는 폴리실리콘 투자비가 kg당 35달러로 경쟁기업의 100달러보다 낮아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08>